

한국남성의 성행태와 향락산업

김강자 / 중앙경찰서장

매춘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으며 남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 어린 여자를 선호하였다. 일제시대에는 공창 제도가 있었으며 미군정시대에는 기지촌문화가 발달되고 양색시들이 있었으며 미성년매춘도 빈번하였다. 그 당시에는 생계형 매춘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외화벌이 목적의 매춘이 성행하였고 '90년대 들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원조매춘이 발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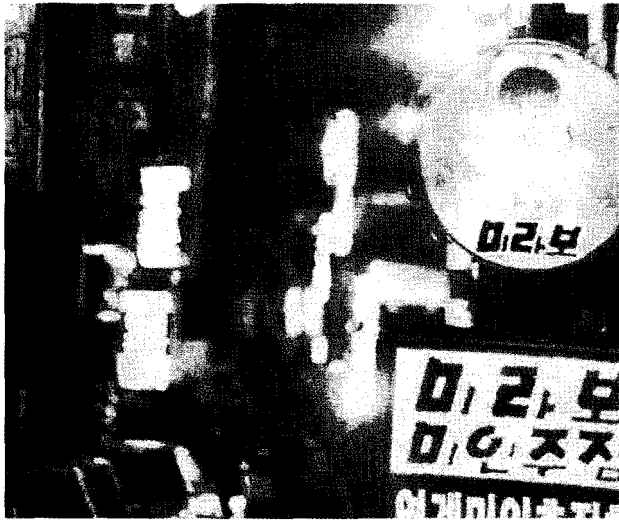
· 한국 매춘사업의 현황

어느날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신의 14살 짜리 딸이 미아리 텍사스에 갇혀있으니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여순경들과 출동하였는데 순간 불을 전부 끄고 저희들을 감금하였고 3시간동안 온갖 협박을 받다가 겨우 풀려나게 되었다. 조사해보니 그 아이는 하루 10명 이상의 고객을 상대로 매춘을 한 결과 성병에 걸려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다. 매춘업주들은 아이들이 성병에 걸리면 파라치

온이라는 파리약을 국부에 뿌려 성병을 고치고 영양제주사를 맞히면서 윤락을 강요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국가에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특수관광지 매춘을 권장까지 하였으며 소녀들을 유인하여 납치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주로

기차역 등에서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한 후에 매춘부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일들이 '80년대 이전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포기하였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신고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매춘업이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속기관과 업주간의 검은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속할 때에는 실제 업주가 아닌 명목상의 바지사장이 구속되고 변호사를 사서 금방 풀려 나오게 하였다. 이에 실제 업주 명단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미성년매춘을 중단하지 않으면 명단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하였더니 대부분 미성년 매춘을 그만두었고, 나

머지 계속하는 업주들과는 전면전을 벌여 급습, 감찰, 위장잡입 등을 통해 단속을 펼쳤다.

미성년 매춘을 계속하던 한 업주를 언론에 공개하고 본보기로 처벌하였더니 많은 업주들이 그것을 보고 미성년매춘을 중지하였다. 미아리 텍사스에 있는 264개 업소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에서 한 업소만 어겨도 그 구역의 전체 업소를 처벌하는 식으로 하였더니



서로 견제를 하고 단속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한 목수의 제보로 이들 업소들에 수많은 비밀문과 비밀통로가 무수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사해보니 방바닥, 천장, 거울 뒤, 옷장 뒤, 냉장고 속 등에서 비밀통로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비밀통로를 만들어 놓고 매춘을 강요하면서 성병에 걸리면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으므로 자기치료를 하거나 안되면 지하실에서 앓다가 죽으면 그대로 화장해버리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미성년들에게 구타, 감금, 착취가 극심하였으나 경찰과 업주간의 유착고리로 인해 단속되지 않았다.

요즈음은 원조교제문제가 심각하여 초등학생에서 50대 아줌마까지 합세하여 퍼지고 있는 실정이며 박카스나 보온병을 든 40-50대 나이 많은 여성들의 매춘도 성행하고 있다. 안마시술소나 이발소의 50%이상이 윤락을 하고 있으며 CCTV를 설치하고 경찰단속을 피하고 있다. 또한 핸드폰, 머리염색 등을 위한 용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는 추세이며 주부매춘도 성행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주부들이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면서 매춘을 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한 기업간부가 노래방에서 매춘을 하는 노래방도우미로 나온 여성이 자기 아내임을 알고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입학식 기념파티와 기말고사 뒤풀이로 사창가로 가는 것이 대학가 풍습중의 하나다.

· 맺는 말

미국 클린턴대통령의 외동딸인 헬시가 성인



이 되었을 때 퍼스트레이디인 힐러리여사는 "내 딸이 아무 탈없이 성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요즈음은 청소년을 위협하는 많은 해로운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하겠다. A